

사도신경 - 세례 때의 신경

사도 신경은 로마 교회의 신경이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사도좌를 지니고 있었으며 신앙과 관련하여 공적인 결정을 내렸던 교회로서, 많은 이단과 오류의 위험 속에서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한 보루의 역할을 해왔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특히 로마 교회는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 성서의 내용을 잘 정리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신경으로 종합, 요약하였던 것이다.

사도 신경은 세례를 위한 신경이었다. 초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성령의 성전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세례를 받을 이는 교회 공동체가 이미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함께 고백해야 했으며, 그 고백의 내용은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 (마태 28,19 참조) 과 ‘예수 그리스도’ (마태 16,16)에 관한 신앙 고백이었다. 세례 때에 예비 신자들은 문답형식으로 주례자로부터 몇 신앙 질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예비 신자들은 응답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다. 이 신앙 고백문이 바로 사도 신경의 기원이다. 그 이후로, 사도 신경은 특히 예비자들을 위한 교리 교육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이를 토대로 교회는 예비자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실제로 “교회의 친교를 위한 유효하고 권위 있는 도구”이자 “신앙 교육을 위한 확고한 규범서”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제1편 신앙 고백 부분에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아닌 ‘사도 신경’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도 세례 때에, 모든 천주교 예비 신자들은 문답형태의 사도 신경을 고백하게 된다. 또한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 중, 세례 서약 갱신 때에 모든 신자들은 사도 신경을 고백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단지 세례 예식 때로 끝나는 고백이나 미사 중에 익숙하게 단숨에 외어버리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고백은 언제나 매일의 자신의 삶 안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약속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2015년 7월26일 청주주보, 김대섭 바오로 신부(복음화 연구소장)]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레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중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욱 세레나/(건강)/브랜든 존스톤 (키모),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임채문이나시오 임채문박토리노 영혼을 위해	임 안드레아 살비아	생	대부 박요셉 대모 박 율리아 건강을 위하여	대녀 최 베로니카
연	영혼을 위하여	요셉	생	김채홍 어그스틴의 건강을 위하여	주 동숙 모니카
연	전용도 김수연마리아 홍루시아 영혼을 위하여	김용욱 세레나	생	서루시아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윤안나
연	문창수 베드로 영혼을 위하여	박춘자 마리아	생	이 플로렌시아 생일을 맞이하여	윤안나
연	서순금 마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연령희	연	이도순 영혼을 위하여	박춘자 마리아

자	전 려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8월 18일(화)	연중 제20주간 화요일	오후 7 : 30	교무금 주일헌금	\$ 3,335.00 \$ 1,262.00
8월 19일(수)	연중 제20주간 수요일	미사 없음	교구원 캠페인 도요 특전	\$ - \$ 35.00
8월 20일(목)	성 베르나르도 아바스 학자 기념일	오후 7 : 30	성수후원금 사회복지 후원금	\$ 129.00 \$ 126.00
8월 21일(금)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오후 7 :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	\$ 161.00
8월 22일(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오후 7 : 30	성당발전기금 합 계	\$ 5,048.00
8월 23일(일)	연중 제21주일	오전 9 : 00 오전 11: 00	미사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1~2 최원숙 4~8월 임유선 5~8월 지동순 6~8월 신홍재 7~8월 이민석 정한호 7~9월 고원석 8~9월 김옥륜 고정하 7월 김은영 임원호 이원건 8월 윤재경 우순이 송민자 김병길 박을생 최이주 안병훈 김덕홍 김숙자 김배국 엄정식 백정심 이상일 엄용덕 이돈수

1구역(FE), 2구역(FO), 3구역(PC), 4구역(NH), 5구역(GF), 6구역(RC), 7구역(RT), 8구역(NC), 9구역(EG), 10구역(DW)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8시)
- ◆ 문 의: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세례 예식 축하합니다

- ◆ 8월 16일(일) 교중미사 중
- ◆ 화요일 교리반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신자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 ◆ 첫 영성체 - 박 리안 디모테오 축하해 주세요
- ◆ 봉창의 루치오, 봉천옥 루치아, 이성훈 안셀모, 안선미 미카엘라 박용호 요셉, 박춘자 율리아, 진성만 바오로 함순자 바울라 곽성일 안드레아 김경란 데레사 (10명)

3. 봉성체(병자 영성체) 신청

- ◆ 주-신부님/ 셋째 주-부제님
-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 ◆ 21일 세 번째 (금요일) 환자 봉성체 있습니다.

4. 축하합니다.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 ◆ 8월 21일 사제직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세요.

5. Mission Appeal

- ◆ 일시 8월 29일(토) ~30일(일)
- ◆ 사랑의 씨앗 수녀회 이선자 마리아수녀님

6. 이선자 마리아 수녀님 특강

- ◆ 일시: 30일(주일) 오후 1시 30분
- ◆ 주제: 하느님의 사람들

7. 교구 2차 헌금: 16일(일) Church in Latin America

8. 프란치스코 교황님 미국 사목방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를 사목방문하십니다.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기도해 주세요

9. 성시간 및 성령찬미미사

- ◆ 8월 28일(금) 저녁 7시 30분
- ◆ 매월 성시간을 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10.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서 작성자는 총 88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	\$39,045.00

11. 감사합니다

- ◆ 이번주 점심봉사: 21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아빌라 데레사회
- ◆ 다음주 점심봉사 : 1구역 보조: 이호순 수산나(\$200)

성전 건립기금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	\$62,087.21

성전건립을 위한 목주기도 30만단 봉헌

지난주 목주기도 봉헌	총 누 계
2,630	250,759

지구 & 교구소식

서북미 꼬미시움 회합 16일(일)- 1시 성당 엘리사벳 방
쁘레시디움 간부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모임안내

: 23일(주일) 1시 엘리사벳 방

- 리노 공소 : 16일(일) 오후 2시 반 출발 차량으로 봉사 하실 분

알 림

- 성당 Wi Fi가 새롭게 작동합니다-
연결 시그널 : SacKcc_WiFi 패스워드 : abcde12345
- 임꺽정 1권 빌려가시분 사무실로 반납 부탁드립니다.

주일 /한글학교

- 주일학교 교장 김미경 아네스 자매님
한글학교 교장 오민정 크리스티나 자매님
학부모 회장 김희정 가브리엘라 자매님을 임명합니다.
- 주일학교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석하도록 합시다.
- ◆ 문의:이시래 베아타(919)749-0632/장선영 스킨스틱(367-3363)

전례 봉사	08월 16일	08월 23일	08월 30일	09월 06일
해 설	김은영 (폴 리 나)	임상일 (프란치스코)	이해련 (데 레 사)	김은선 (제노베파)
1 독 서	박대련 (요 한)	김상범 (히지노)	이대원 (베 드 로)	류승교 (바오로)
2 독 서	이지은 (크리스티나)	기은희 (마리아)	이주연(크리스티나)	류재순 (마리안나)
복 사	윤성훈(가브리엘) 송돈희 (요 셉)	양경민 (안드레아) 류승교(바오로)	김재열(스테파노) 이대원(베 드 로)	김민규(다미아노) 윤여훈(로 마 노)
/기도/청소	1FE~2F0	1FE~2F0	1FE~2F0	3PC~4NH
헌금 위원	송돈희, 임상일	장석자, 고원석	고공자 임그라시아	전비아 김미애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ShoGun Sushi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p> <p>길성진 ☎(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le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 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신세계 여행사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688-0157</p>	<p>한국위성방송 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 (Direc TV) "무 료 설 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9</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 과산법 전문 (, 사업법,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Exigo ITSolutions 컴퓨터 수리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 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일날 성당에서도와드립니다 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송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잠언 9:1-6** 제 2 독서 **에페소서 5:15-20** 복 음 **요한 6:51-58**

화답송: 시편 34(33), 2,-3, 10-11, 12-13, 14-15 (◎ 9ㄱ)

화답송



주님 미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잠잠이처럼

시골 어느 농부의 공간에 들쥐네 식구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주인 농부가 이사를 가고 말았다. 공간도 텅 비고 말았다. 겨울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쥐들은 콩이랑 열매, 밀이랑 짚을 모으기 시작했다. 모두들 밤낮없이 일했다. 하지만 들쥐 식구들 중에 ‘잠잠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 “잠잠이, 너는 왜 일 안하니?” 그들이 물었다. “나도 일하고 있어.” 잠잠이가 대답했다. “춥고 어두운 겨울날을 위해 햇빛을 모으고 있는 중이란다.”

언젠가는, 풀밭을 노려보며 앉아 있는 잠잠이에게 작은 쥐들이 물었다. “대체 뭘 하는 거니?” “빛깔을 모으는 거야.” 잠잠이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겨울은 젖빛이니까.” 또 때로는, 잠잠이가 반쯤 눈 감은 듯이 보였다. “너 졸고 있구나.” 그들은 나무라듯이 깨울었다. 그러자 잠잠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아니, 말을 모으고 있는 거야. 길고 긴 겨울철 애기거리기 없애주는 날을 위해...”

겨울이 닳쳤다. 그리고 첫눈이 내렸다. 작은 들쥐 다섯 마리는 공간 안 그들의 집으로 꼭꼭 숨었다. 처음 얼마 동안에는 먹을 것이 흔했다. 쥐들은 어리석은 여우나 바보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러다가 양식은 차츰 동이 났다. 열매와 딸기가 바닥이 나고 짚마저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콩은 오직 기억에만 남아있게 되었다. 집안은 쓸렁하고, 이제 수다를 떠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들은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햇빛과 빛깔을 모은다면 잠잠이의 대답이었다. “네가 모은다면 건 어떻게 되었니?” 그들은 비로소 궁금해 하였다. “눈 감으라구.” 커다란 돌멩이 위로 올라서며 잠잠이는 말했다. “자, 너희들에게 햇빛을 보여주마. 얼마나 눈부신 햇살인지 알겠니?” 잠잠이가 해님 이야기를 꺼내자 작은 쥐들 네 마리는 언뜻 따스함을 느꼈다. 잠잠이가 요술을 부린 것 같았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들쥐 식구들은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 노동하는 인간의 측면을 보여준다. 반면에 잠잠이는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측면을 의미한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 문제는 잠잠이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잠잠이의 가족들에게 잠잠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버는 것에는 약삭빠르게 움직이지만 영적인 양식을 쌓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잠잠이는 별로 하는 일 없이 반동대는 게으름뱅이로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모으고 있었다. 아마 다른 가족들은 ‘아무 쪽에도 쓸데없는 짓’ 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잠잠이가 모아 둔 것은 중요한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한다. 잠잠이는 영적인 양식을 모으는데 관심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주일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이 차려진 식탁에 찾아오는 신자들을 통해 잠잠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잠잠이가 하는 노력을 가벼이 생각하거나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쓸데없는 행동같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의 의미이다.

예전 본당 김기환 요셉 신부

장
종
지

성모 승천

촛불 한 자루 마주하고
불꽃으로 어리는 님 뵈오리다
내 님 스러질까 봐
감은 눈 끝내 뜨지 못하오리다

유경환 클레멘스 · 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 · 화가


